# 윤장현 시장 "北 참가 마지막까지 기다리겠다" 개성 방문 실무단에 메시지 전달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마지막까지 기다릴 겁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29일 "이희호 여사 방북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위해 30일 개성을 방문하는 관계자에게 북한의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U대회조직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며 북한의 U대회 참가를 다시한번 호소했다.

30일 개성을 찾는 방문단은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이사와 윤철구 사무처장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개성에서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등 북한측 관계자를 만난 뒤 당일 귀환할 예정이다.

윤 시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방북 관계자들께 광주U대회 선수촌은 북한을 위해 아직 문을 열어 두고 있다는 말을 북측에 전해 줄 것을 부탁드렸다"면서 "광주U대회 개막식 날까지 북한 참가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클로드 루이 갈리앙 회장도 북한의 불참 통보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면서 "스포츠단체인 FISU가 남북문제에 관여할 수는 없다. 북한이 참가한다면 언제든 맞이할 준비는 돼 있다"고 밝힌 상태다.

광주 U대회 조직위측은 지난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때도 개막 이틀을 남기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일 광주U대회 조직위로 이메일을 보내 서울에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 등을 이유로 대회 불참을 통보한 상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2일 밤 K-팝 그룹·전통음악 어우러진 전야제 행사

**달아 오르는 대회 열기**

## 내일 개회식 최종 리허설
## 2일 600여명 FISU 갈라행사
## 도심 곳곳 다양한 문화행사 시작
## 3일 오후 7시부터 개회식
## 입장권 판매 목표 50% 넘어서
## 리듬체조·배드민턴 등은 매진

전 세계 대학생의 스포츠 축제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 U대회)가 다음달 1일 모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 개막의 서곡을 울린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개막 이틀 전인 7월 1일 오후 U대회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 최종 리허설인 모의 개회식을 연다.

모의 개회식에서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글 등 우수한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이야기가 해학적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락사운드를 배경으로 수백명의 출연진들이 역동적인 몸짓으로 광주의 고싸움을 재해석해 보여준다.

한국의 신명나는 민요를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으로 변환해 연주하고 마치 DJ 파티에 온 듯한 분위기 속에서 전 세계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의 행진도 펼쳐진다. 다만 개회식 피날레 행사는 개회식 당일 오픈된다.

이어 7월 2일에는 FISU(국제대학스포츠연맹) 갈라(Gala)행사와 전야제가 치러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FISU 갈라행사에는 FISU집행위원과 개최도시 조직위원 등 600여명이 참석하며, 식전공연과 개최예정도시 소개, 문화행사 등이 진행된다.

FISU 갈라행사는 대회 개막을 앞두고 대회 관계자들을 초대해 U대회 유공자를 시장하고, 차기대회 및 한국(광주)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또 이날 오후 8시부터는 전남대학교 종합운동장에서 전야제도 열린다. 전야제는 '빛의 도시' 광주의 미래지향성과 역동성, 현대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지구촌의 화합을 다지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정의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와 타악 그룹 진명, YB, 로맨틱 펀치, 알리, 샤이니, 포미닛, EXID, 걸스데이, 방탄소년단 등 인기가수들이 총 출동해 흥을 돋울 예정이다.

같은 달 3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되는 개회식은 관람객 레크레이션과 반기문 UN사무총장의 영상 축하메시지, 풍물놀이 등 식전행사로 시작된다. 이어 귀빈입장과 개회식 시작선포, 국기 입장과 게양, 선수단 입장 순으로 펼쳐진다. 밤 9시30분부터는 귀빈들의 환영사와 개회사, 대회사, 개회선언이 이어지고, 대회기 입장과 게양, 선수와 심판대표의 선서가 진행된다. 밤 10시10분 문화공연과 연계된 성화의 입장·점화로 대회 개막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된다.

이날 주제공연에서는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로 세상이 빛을 잃어버릴 때 국악소녀 송소희양이 등장해 아름다운 우리 소리로 자신의 안에 담긴 빛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개회식 이후 광주 도심 곳곳에서는 ▲선수촌 문화행사(7월1~15일) ▲청년난장페스티벌(7월3~14일) ▲유니버시아드파크(7월3~14일) ▲경기장별 문화행사(7월2일~14일)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진행된다.

한편 대회 개막이 다가오면서 입장권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

29일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입장권 판매 목표액은 59억6000만원으로, 26일 현재 판매액은 목표액의 52.5%인 3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주요 인기 종목은 이미 매진됐다.

손연재(연세대)가 출전하는 7월12일 리듬체조 경기를 비롯한 이용대(삼성전기)가 메달 획득에 나서는 7월11일과 12일 배드민턴 준결승, 결승전의 입장권이 매진됐고, 단체 구기 종목 중에서는 농구가 7월11일, 12일 광주대 경기 입장권도 모두 팔렸다.

또 양궁과 탁구, 펜싱, 태권도, 수구 등의 경기도 주요 날짜 입장권이 매진 행렬을 기록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 광주유니버시아드에 참석하는 호주의 수구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29일 선수촌 내 피트니스 센터에서 현지 적응 훈련에 앞서 준비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U대회 이모저모**

## 충주 탄금호조정경기장 준비 완료

충북 충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이 7월 5~7일 열리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조정경기에 대비해 만반의 대회 준비를 마쳤다.

U대회 조정경기는 30일 입촌식을 시작으로 36개국 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내달 5~7일 사흘 동안 열린다. 대회 기간에 U대회 조직위원회와 충주시 공무원을 비롯해 530여 명이 투입돼 경기 운영과 안전 점검, 의료 지원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 U대회 홍보 '관광 광주' 블로그 개설

한국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와 프로축구 K리그 전남 드래곤즈의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힘을 합해 U대회가 열리는 광주를 알리는 '관광 광주'(Travel Gwangju) 블로그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로 제작해 29일 일제히 선을 보였다.

한국어 사이트는 네이버(blog.naver.com/travelgj), 영어 사이트는 구글(travelgwangju.blogspot.kr), 중국어 사이트는 시나닷컴(blog.sina.com.cn/u/5593290722), 일본어 사이트는 야후 재팬(blogs.yahoo.co.jp/travelgj)에 각각 개설됐다.

이 블로그는 광주광시를 광산구·동구·서구·남구·북구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맛집·명소·숙박·편의시설 등을 사진과 지도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남아공 유니폼 '한국에 감사' 문구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수단이 유니폼 뒷면에 한국어로 '남아공이 한국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써 넣은 문구가 다른 선수단과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조직위에 따르면 남아공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과 광주시민들에게 어떻게 친근감과 감사의 뜻을 표시할까 고민하다 유니폼에 한국어로 '남아공이 한국에게 감사합니다'란 문구로 써넣기로 했다.

이 유니폼을 입은 채 선수촌을 활보하는 남아공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타 선수단과 자원봉사자, 대회 진행요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기념상품 선수촌·경기장 등서 판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인형과 기념티셔츠 등 공식 상품이 오는 7월 15일까지 광주U대회 선수촌과 주요 경기장에서 판매된다. 주요 상품은 마스코트(누리비) 인형과 기념티셔츠, 기념메달, 모자, 열쇠고리, 문구류 등 다양하다. 조직위는 광주U대회 선수촌을 비롯한 유니버시아드파크(주경기장 인근), 메인프레스센터(MMC 4층)와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등 10곳에 기념품 판매점을 설치했다. 또 본부호텔(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광주여대유니버시아드체육관, 남부대국제수영장, 염주종합체육관, 조선대체육관, 충북 충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등에도 마련됐다.

## 분산경기 정읍·고창 소방관리 강화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7월 3~14)의 분산 개최지인 정읍과 고창에 대한 소방 및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축구와 핸드볼경기가 열리는 정읍 공설운동장, 고창 공설운동장, 고창 군립체육관에는 소방차와 구급차를 전진배치하고 안전요원을 대기시켜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